

#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부활절 후 여섯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6월부터 8월까지 수요기도회는 쉽니다.
4.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9일 : 서지혜
  - 31일 : 김선율

##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위충일 / 설교번역: 한예은
- 6월 안내 및 봉사: 주나 목장

## \*향후 교회 행사 (Church Plan)

- 전교인 가족 캠프 : 6월 7-8(토,일) @ Good Earth Village
- 야외예배 : 8월 24일, Silver Lake Park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21주)

행 16:9-15 / 시 67 / 계 21:10, 22-22:5 / 요 14:23-29

교회세운날 2017.6.11

25-21

5월 25일 (부활절 여섯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6월부터 8월까지 쉽니다.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213-357-7614

#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 148:13-14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양하나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12장 44-50절 — 인도자

설교 — 보내신분의 뜻이 영생인 줄 안다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 목회편지 / 여름인가요

주중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메마른 들녘에 촉촉히 비가 적셔주니 희뿌연 땅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여 넉넉하고 여유있어 보입니다. 밭에 다가가 지난 주 심겨진 옥수수 씨앗이 싹을 틔나 자세히 보지만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알의 옥수수 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있을테니 이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요. 밭 주변을 걸으며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이다.”라는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월요일 밤늦게 갑자기 응급실에 입원해 화요일 새벽에 맹장염 수술을 받은 김지은 자매님의 병문안을 다녀 온 후라 그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이에 게 걷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일까요? 땅 위를 걷는 이 순간이 기적임을 다시 감사하며 걸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기적입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막내 녀석이 갑자기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하길래 부랴부랴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약을 처방 받고 퇴원을 했지만 다음날 증세가 더 심해지고 근육통까지 오면서 자지러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응급실에 입원하여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를 맞고 링거를 맞았더니 한결 증세가 완화되는 듯 했습니다. 아파서 먹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짠합니다. 고국에서는 견지 못하시는 아버지께서 혼자서 거동하시기 힘들어 지는 상황이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시다 허리가 망가지셔서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아 지니 이레 저레 마음이 싱숭생숭 합니다. 옥수수밭 주변을 걷고 걸으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현재 내가 누리는 많은 기적들에 감사를 드려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지내시나요? 다들 무고히 잘 지내시나요? 힘든 일 있으면 혼자서 끄공 앓지 마시고 함께 나눠주세요. 다들 별 탈 없이 지내시기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에 들어갔으니 부모님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하지 않겠지요? 아이들 삼시 세끼 챙겨 주어야 하는 엄마들에게 방학은 힘든 시간입니다. 어머니들 힘내십시오. 5월에는 청년들이 이사를 많이 하네요. 함께 하우스를 쉼어하며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서로 서로 행복하게 연합하여 잘 지내길 바랍니다. 함께 인생의 뜨거운 여름, 청춘기를 같이 보낼 동지가 이역만리 떨어진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방학을 틈타 한국에 가는 가정도 있고, 한국에서 방문객들이 오시는 가정도 있고,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두들 아프지 말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2주 후면 가족캠프로 뜨거운 여름밤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설렙니다. 이번엔 청년들도 많이 동참하고 침실이 남아나지 않게 많은 이들이 동참하게 되니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저도 남은 2주 기간 준비 잘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6월 부터 8월까지 는 쉬어가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목장 모임도 잘 의논 하셔서 어느 정도 쉬어가 시고, 주일학교도 교사들에게 달콤한 쉼의 시간이 있길 바라구요, 수요 기도회도 쉬어 가겠습니다. 멈춤과 쉼을 통해 새 힘 얻고 새로워지는 여름이길 축복합니다. 모두들 뜨거운 여름, 각자 자리에서 잘 버티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